

그라운드 향하는 염경엽 감독

등록 2026.06.09 21:54:16



[서울=뉴스] 이영환 기자 = 9일 오후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, 8-2로 승리한 LG 염경엽 감독이 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향하고 있다. 2026.06.09. 20hwa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